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TV·라디오 광고 및 소비자교육 통합 대행사 선정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11월 12일 서울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TV·라디오 광고 및 소비자교육 통합대행사 선정 심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총 광고비 4억원으로 TV·라디오 광고 및 TV PPL,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행할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12일 최종 심사를 가졌다.

광고 심사위원으로는 광고전문가 3명, 소비자단체 2명, 축산단체 2명, 관리위원회 1명 등 총 8명을 위촉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광고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3개 광고전문업체가 경합을 벌인 결과 (주)손바닥미디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대행사 계약 후 본격 홍보사업에 돌입하게 된다.

(주)손바닥미디어가 제안한 광고 슬로건은 “매일 매일 신선한 달걀로” “생활과 건강을 풍요롭게(EGG = Everyday fresh, eggs Good for life, Good for health)”이며, 달걀 소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소비문화와 식습관을 바꾸어 주고, 달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겠다는 방향설정으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CI 제작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산란계자조금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CI를 제작했다.

세 가지 예비시안 중에서 관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본 CI는 계란의 단면과 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표현한 테이블을 함께 배치하여 계란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녹색 바탕을 사용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여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제작된 CI는 앞으로 소비홍보 활동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비홍보 활동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와 홍보활동에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사)축산경제연구원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안 토론회



(사)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은 계열주체 관계자들과 농가대표 및 학계 관계자 등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육계계열화 사업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육기간이 짧은 육계산업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는 수급조절이 용이 할 수 없어 계열 주체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가격의 등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본회 이흥재 부회장은 축산법 내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이전에 책임과 의무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러한 것이 합의되기 이전에 지원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육계산업 전 구성원이 아닌 계열화 사업자들을 위한 법개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 26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지난 13일 진주산업대학교 공동실습실 습관에서 회원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0년 진주산업대학교(총장 김조원) 개교 100주년 기념과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발표회는 신진가금학자 특강에 이어 구두발표,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진가금학자 특강에는 서울대학교 강석진 박사가 ‘평균 닭의 종간 키메라 생산’을, (주)하림 권정택 박사(상무)가 ‘재조합 감보로

와 마렉백신의 면역성에 대한 재조명’을, 건국대학교의 김용란 박사가 ‘가금사료 첨가제로서의 복분자, 박하 및 매리골드 추출물의 이용효과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하였으며, 구두발표는 최연호 교수의 ‘능력검정 자료를 이용한 국내 산란계의 생산성 변화 추이와 개량 진도 추정’외 10편이 소개되었으며, 포스터는 29편이 출품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재홍 수석부회장이 2년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차기 수석부회장은 서울대학교 한재용 교수가 만장일치로 추천되었다. 이날 학회상 시상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는데 공적상은 저술분야에 서울대학교 이무하(서울대) 외 4인이 행정분야에서는 곽형근 전 HACCP 원장이, 공로패는 이상진 전 회장이, 류경선 전북대 교수가, 강근호 축산과학원 박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차세대 학술상에는 진선덕(충남대), 정용대(전북대), 박경제(서울대) 학생이 수상하였고, 감사패는 독바위농장, 미국대두협회, 농협사료마케팅, 양지부화장, 삼화육종, (주)삼양사, (주)대호, 바이엘코리아, 산골농장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자조금회계 및 사무관리 능력 향상 워크숍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지난 11월 4일(금)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각 축종별 자조금관리 사무국, 축산단체,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축산자조금 회계 및 사무관리 능력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축산자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적절한 관리운영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축산자조금 제도 및 운영관련 개선방안 등이 검



토, 발표되었다. 또한 축산자조금 운영실태 감사를 맡은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측면에서 보는 축산자조금 사무 및 회계처리 보완 및 개선사항' 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의 '2010년도 예산편성 및 사무회계 공동처리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각 축산자조금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알가공품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11월 18일 비살균액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살균액란에만 적용하는 미생물 기준 규격을 비살균액란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알가공품의 미생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

분과)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개최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 세균수

(현행) 1g당 10,000이하(살균제품에 한한다)

(개정안) 살균제품은 1g당 10,00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하이어야 한다.

(현행) 1g당 10이하(살균제품에 한하며, 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

(개정안)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 이어야 한다(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

▣ 살모넬라균

(현행) 음성이어야 한다(살균제품 또는 피단에 한한다).

(개정안)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비살균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를 위해 Codex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토록 심의하였으며,

(현행)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 이상 보관시 0℃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번에 심의한 개정(안)은 향후 WTO 통보 및 동 내용의 관보게재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법적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2월경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의 심의결과에 따라 검역원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서 정하는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 개정으로 그 동안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던 비살균액란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 가족 HACCP 현장 방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축산물HACCP 인지도 제고를 위한 2009년 5차 식육 판매업 HACCP 현장 방문을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종자원, 축산물HACCP기준원) 직원 가족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용인축산업협동조합육가공공장, 다영푸드(주), (주)푸림푸드, 건국유업·햄, 음성청결한우를 방문하여 현장의 HACCP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저녁에 실시된 세미나에서는 농식품부 안전위생과 최대후 과장의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및 향후 추진 방안 설명'과 기준원의 HACCP 진행사항, 식육 판매업HACCP와 농장HACCP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대전충남양계농협

AI 발생 대비 방역소독 실시

대전충남양계농협(조합장 안병철)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북방철새 도래시기에 따른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각 지역별로 방역소



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몽골, 러시아 등 AI 발생국가로부터 날아오는 겨울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AI 발생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만의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AI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전충남양계농협 지도계 직원은 양계조합원을 대상으로 주 3회 방역소독을 펼치고 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20대 회장에 김경주 회장 재선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 11월 14일 숙명여자대학교 켐마홀에서 개최한 2009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20대 임원 선거를 통해 제19대 회장이었던 김경주 회장(고려대학교의



▲김경주 회장

료원 구로병원 영양팀장)이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이날 김경주 회장을 비롯하여 감사,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제20대 임원진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기 기간 동안 11만3천여 영양사와 함께 우리나라 단체급식의 발전과 국민건강, 바른 식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 등을 하게 된다.